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례 10:15 고전 9:16 행 1:8
2023년 주님의교회 표어



470
2023.8.13.

오늘의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_ 잠언 25:13

오늘의 주요기사

2-4 여름성경학교 유소년숲
5 여름성경학교 유아숲

6-7 청소년숲 여름캠프
8-9 싯딤나무 제주방문기

10 교회사용설명서 - 유소년숲
11 십자말풀이



‘여름’ = ‘수련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가족의 여름휴가는 거의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마시절이었기에 형누나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일정 중에는 편하게 지내긴 했지만 수련회 참여한 형누나들과 같이 성경구절을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때의 수련회는 두고두고 가족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당연히 가야 하는 수련회였고 한창 대학입시에 정신없는 고3때도 여름수련회는 당연한 일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멈추었던 오프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될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어린 시절의 수련회를 추억하듯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며 ‘여름’이면 언제나 ‘수련회’가 먼저 생각나는 아이들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여름성경학교
유소년숲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하나님은 4년 만에 교회와 각 처소에서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도로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소년숲의 모든 여름사역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삼하 6:14, 대하 20:21, 행 10:45-46)’라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유년부(초등 1~2학년)는 7.29(토)~30(주일),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되었고, 초등부(초등 3~4학년)와 소년부(초등 5~6학년)는 7.28(금)~30(주일), 2박 3일 일정으로 치악산 황둔 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누렸습니다.

준비부터 마치는 예배의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세심한 계획하심 가운데 은혜만 넘치는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찬양팀의 찬양, 은혜 넘쳤던 예배, 예배를 배우며 함께 했던 코너 학습, 신나는 물놀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이 흘러나온 기도회는 아이들을 예배자로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들의 헌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많은 부모님들 한 분 한 분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소감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샬롬! 2023년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유년부에서 처음 열리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김경민 목사님과 유년 1, 2부 선생님들은 한 달 전부터 매주일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며,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매일 아침 목사님의 큐티 나눔과 일별 담당 선생님의 기도문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7월 28일 토요일 10시부터 80여명의 친구들이 싹트네실에 모여 여름성경학교 시작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조별로 이동하여 성경학습시간을 갖고,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손수 준비해주신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어진 실내활동을 마치고, 실외 활동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물풍선 던지기, 물총놀이 등을 하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활동이 모두 끝나고, 간식을 먹은 후, 친구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기도회 시간 동안, 즐겁게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차분하게 예배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정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주신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무사히 준비한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름성경학교의 추억을 간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윤진영 집사 / 유년2부

소감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삼하6:14, 대하20:21, 행10:45-46)’라는 주제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치악산 황둔 청소년수련원’에서 초등부 수련회가 열렸고 스태프로 동행하여 기쁨과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태프로서, 여자 선생님들 대비 남자 선생님들의 수가 적은 특성으로 인해 주로 몸을 활용(?)하는 일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버스에 싣고 내리고 나르기, 대그를 활동과 코너 학습에서 선생님을 도와 시범 보이기, 물놀이 시간에 아이들과 어울리고 물 미끄럼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도하기, 그리고 3학년 남자아이들의 취침 지도하기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물총을 모두 나눠주고 함께 즐겼는데, 약 10여명의 아이들로부터 동시에 날아오는 물줄기에 “살려줘~”를 외치며 도망치고 어울린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불어,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에 진행된 찬양 예배와 기도회는 결코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 수련회 때 처음으로 느꼈던 은혜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뜨거운 시간이었고, 많은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10시 정도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단체로 당황했는데, 다행히 셋째 날 새벽 2시 정도에 복구되어 큰 불편은 겪지 않았으며, 우리 방 에어컨의 고장으로 인해 아이들이 잠자기에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권사님들과 여자 선생님들께서 희생하시어 본인들의 방을 내어 주셔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다음 날 딸 아이에게 “너 수련회 또 갈 거야?”하고 물었더니, “당연하지, 근데 왜 겨울 수련회는 없어?”하고 되물었습니다. 수련회가 얼마나 기쁘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희생과 봉사로 수련회를 준비해주신 이상훈 목사님, 권동준 전도사님, 그리고 담당 권사님들과 초등부 선생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련회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노형준 집사 / 초등1부 (노하주 어린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_ 사무엘하 6:14

유소년숲 EM(English Ministry)는 Shine Jesus'Light(John 8:12)라는 주제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로 세우게 했습니다. 7.22(토)~23(주일), 26(수),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VBS(Vacation Bible School)가 열렸습니다. praising team이 이끄는 찬양으로 시작을 알렸고, 그룹 활동(station activities)이 이어졌습니다. EM VBS는 유소년숲 아이들을 크리스천 글로벌 어린이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소감 | EM VBS

지난 2주동안 EM VBS (Vacational Bible School)를 진행하며, EM 어린이 예배 아이들은 참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친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나와 팔 다리가 빠질 것 같이 격하게, 온 교회가 떠나가라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의 춤은 일상 속에서 지친 제게 새로운 생명력이 되고, 존재만으로 어둡고 암울한 현대 사회의 희망을 보는 듯 합니다.

이번 VBS는 E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선생님들 뿐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봉사자로 참여하시며 모든 직·간접적 예배 일원이 참여한 뜻 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도, 환경도 다르지만, 영어와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각지에서 모이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합쳐져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기도한 대로 그 누구 하나 아쉬움 없이 즐거움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또한 초중등 시절, 교회에서 주최한 MUN 프로그램 가운데 담당하신 박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셀 수 없는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 신앙적, 기술적 훈련을 받아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었기에,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 저희 예배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고 계시진 않을까 문득문득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닌 선생의 입장에서 봉사하러 왔으면서도 VBS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무한한 열정과 겸손함을 되려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예배가 건강한 믿음과 성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서여람 성도 / EM

소감 |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찬양이 흥얼흥얼~ 동생과 합동으로 찬양과 율동~ 선생님! 수련회 이후 저희 집이 천국이네요^^ 애쓰신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게요”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줄곧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피노키오 황둔 청소년 수련원”에서 7월 28(금)~7월 30(주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무려 4년만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준비한 여름성경학교는 언제나 그러하시 듯 우리의 부족함도 이해해 주시고 넉넉히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총95명(학생 69명, 교사 및 학부모 26)이 참여한 가운데 성경 공부, 각종 코너 학습(게임), 레크레이션, 물놀이, 조별 활동 및 발표, 보이는 라디오(소소한 이야기), 찬양집회와 기도회 등 준비한 모든 일정이 아이들의 열렬한 참여하에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과 둘째 날 진행된 찬양집회 시간에는 (다리가 풀려 거의 실신 직전까지!) 온몸으로 주님을찬양하며 주 앞에 뉘눕던 아이들 둘째 날 저녁 소년부 담당 이수민 목사님의 주재 하에 진행된 기도회 시간에는 다 같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손을 모아 기도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찬양과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또한 주님 앞에서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금 반추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했던 여름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음에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여러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해 준 우리 소년부 아이들과 소년부 아이들이라면 사족을 못쓰시는 멋진 우리 선생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분께 쓰임 받는 삶”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정유석 안수집사 / 소년2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끄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_ 역대하 20:21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_ 사도행전 10:45-46

여름성경학교
유소년수



여름성경학교
유아숲

믿음의 꽃이 피는 시간

7월 8일(토)부터 9일(주일)까지 “믿음의 사람, 나예요!”라는 주제로 유아숲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270명의 어린이, 부모, 교사가 모여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주제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용기가 충만하며,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하신 두 부모님의 간증문을 소개합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2023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믿음의 사람, 나예요!”에 참석한 12개월 아기 소은이에요^^

걸기 전부터 교회로 인도하시고 걸음마를 하며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소은이의 아빠도 참석해서 더욱 뜻 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은이를 축복의 통로로 소은이의 아빠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풍선으로 꾸며진 포토존을 보며 아이가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찬양 시간에도 연극을 볼 때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울동을 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찬양들이 너무 좋아서 즐겨 부르는데 소은이도 찬양이 마음에 드는지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오프닝 예배를 마치고 아기부실로 이동해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축감놀이 활동도 재밌게 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과 식사시간까지 준비하신 분들의 애쓰신 손길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유아숲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빛나 집사(자녀 박소은) / 아기부



초4학년, 6세 딸 둘을 키우는 오영재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교육도 종종 찾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잘 못하는 영역인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모습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주기는 바라지만 가정 안에서 매일 기도와 말씀의 예배자로 세워 가는 건 참 쉽지 않음을 아이가 커갈수록 느껴집니다.

예배에 밀어 넣기에 급급한 저에게 여름성경학교는 참 감사한 활동이고 아이에게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저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보조교사를 신청했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지켜봐주고 활동사진을 찍으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의 모습에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비밀 펜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는 모습에 웃음 짓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이게 “믿음의 사람, 나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칭찬하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무슨 시간이 제일 재미있고 기억이 나?”라고 물었더니 돋보기로 믿음의 사람을 찾는 연극이랑 믿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하며 다윗과 골리앗에게 믿음의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 기억이 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열심으로 기획해주시고 섬겨주신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글을 통해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오영재 집사(자녀 현서희) / 유치부

<호흡의 숲> 힐링 캠프 - 호흡하라 1419 who how who how

청소년수련원 팜콘트리 중등부는 7월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호흡의 숲, 힐링캠프'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원주 피노키오 청소년수련원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팜콘이들(중등부 친구들)은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호흡의 숲에 초대되어 낚시(fishing), 정원 가꾸기(gardening), 집 꾸미기(housing), 패션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는 동물의 숲 캐릭터들처럼, 예배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호흡의 의미를 배우고, 제대로 숨 쉬는 힐링 캠프를 즐겼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2023년 청소년수련원 포어, '호흡하라 1419 who how who how'를 직접 삶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팜콘이들이 호흡(생명)의 주인 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플러그 인(plug-in) 함으로 자유롭게 숨 쉬며, 곁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여한 138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웃(서로)에게 아낌없이 생기를 나누고, 기운을 북돋아 주겠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캠프는 끝이 났지만, 호흡의 끝나는 그날까지 생기를 나누는 우리의 삶의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준비 기간부터 2박 3일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불어 함께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최혜원 목사 / 중등부

첫째 날

- 1) '들숨 위십' (오프닝 예배)을 통해 '호흡의 숲'에서 마음껏 호흡하고, 하나님께 플러그 인(plug-in)하는 온전한 삶의 자리로 중등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 2) '행복함을 하우징' (팀 빌딩)을 통해 조원들끼리 협력하여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고, 아름다운 텐트를 꾸미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3) '호흡의 숲 위십' (저녁 집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마저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기도함으로 '나와 호흡'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4) 또한 하루의 끝에 조별로 텐트에서 야식을 함께 먹으며 '후하후하 힐링캠프' (보이는 라디오)로 팜콘이들의 고민과 사연, 신청곡을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 1) '조별 기상 미션'으로 즐거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 2) 자연에서 새소리, 물소리를 듣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오감으로 말씀을 느끼는 '바디 & 마인드 가이드' (오감 QT)를 진행했습니다.
- 3) 임경순 목사의 기도 특강, '숨만 제대로 쉬었을 뿐인데, Who How Who How'를 통해 기도의 다양한 방법과 실재를 경험해 보면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기를 도전받았습니다.
- 4) '즐거움을 피싱' 시간에는 실내 미니 게임을 통해 물총을 획득하여 야외로 나가 즐거운 워터 페스티벌을 즐기며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5) '호흡의 숲 위십' (저녁 집회2)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생기(숨결)를 불어넣으신 크신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인생에서 큰 파도를 만나도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루아흐(ruach)와 함께라면 괜찮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 6) 예배 이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셀러브레이션'으로 함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7) 야식을 먹으며 보이는 라디오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

- 1) 마지막 날은 청소년수련원 연합으로 '날숨 위십' (클로징 예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연극과 조별 나눔을 통해 '이웃과 호흡'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	21(금)	22(토)	23(주일)
7:00 - 8:00		조별 기상 미션	가상 및 세면
8:00 - 9:00	등록	남남남(아침)	남남남(아침)
9:00 - 10:00		바디&마인드 가이드	날숨 위십(연합) 축복 및 사탄 할령
10:00 - 11:00	캠프로 Go!	숨만 제대로 쉬었을 뿐인데, Who How Who How (특강)	교회로 이동
11:00 - 12:00		남남남(점심)	
12:00 - 1:00	남남남(점심)	남남남(점심)	
1:00 - 2:00	남남남(점심)	남남남(점심)	
2:00 - 3:00	들숨 위십 및 OT	즐거움을 피싱 (Water festival)	
3:00 - 4:00	행복함을 하우징 (Team building)	호흡 가이드(숨)	
4:00 - 5:00		남남남(저녁)	
5:00 - 6:00	남남남(저녁)	남남남(저녁)	
6:00 - 7:00	남남남(저녁)	남남남(저녁)	
7:00 - 8:00	호흡의 숲 위십	호흡의 숲 위십	
8:00 - 9:00	호흡의 숲 위십	호흡의 숲 위십	
9:00-10:00	후하후하 힐링캠프 (Radio)	셀러브레이션 후하후하 힐링캠프 (Sharing)	
10:00-11:00	후하후하 힐링캠프 (Radio)	셀러브레이션 후하후하 힐링캠프 (Sharing)	
11:00-12:00	후하후하 힐링캠프 (Radio)	셀러브레이션 후하후하 힐링캠프 (Sharing)	



호흡의 숲 후기영상



여름캠프
청소년수련원 고등부

고등부 여름캠프, 'Just Breathe'

청소년수련원 비전트리 고등부는 7월 21일(목)부터 7월 23일(주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피노키오 청소년수련원에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처음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번 캠프를 위해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고등부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이 되는 귀한 캠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던 부분은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모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2박 3일 외부에서 열리는 캠프를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업과 학원에 대한 부담도 아이들에게는 수련회 참석을 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캠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전트리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조별 부스 활동을 통해 어색한 벽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감을 깨우는 아침QT’에서 우리의 몸의 기관 하나, 하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몸 기도’에 대해 배웠고, 청소년수련원 연합특강 ‘숨만 제대로 쉬었을 뿐인데’를 통해 ‘왜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기도문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나는 물놀이와 매일 밤 진행되는 토크쇼, ‘보이는 라디오’는 아이들이 여름캠프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큰 은혜의 요소인 ‘간식’은 매번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들이 차례차례 진행될 때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답답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호흡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Just Breathe’,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의 호흡, 깊고 긴 호흡을 가지고 나아가는 비전트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계원 전도사 / 고등부

주님의교회 비전트리 고등부

2023 여름수련회 시간표

시간	21(금)	22(토)	23(주일)
7:00 - 8:00	♥	조별 기상미션	기상 및 세면
8:00 - 9:00	교회에서 등록!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 - 10:00		오감을 깨우는 아침QT	[연합예배] 날숨쉬심
10:00 - 11:00	피노키오 수련원으로 출발!	[연합특강] 숨만 제대로 쉬었을 뿐인데, Who How Who How!	
11:00 - 12:00		점심식사	교회로 이동!
12:00 - 1:00			
1:00 - 2:00	점심식사		
2:00 - 3:00	들숨쉬심 & OT	[탐방] 미나 올림픽 & 워터 배틀그라운드	
3:00 - 4:00	아이스 브레이킹		
4:00 - 5:00	[부스 활동] 호흡 되찾기		
5:00 - 6:00			
6:00 - 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 - 8:00			♥
8:00 - 9:00	Just Breathe①	Just Breathe②	
9:00-10:00			
10:00-11:00	보이는 라디오① 우호나 Who~	보이는 라디오② 우호나 How~	
11:00-12:00	취침	취침	



고등부 여름캠프 후기영상



더욱 은혜

할렐루야! 씻딤나무 제주 성지 순례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일정을 마치는 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닿은 것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장애인사역부의 여름 사역의 주제 ‘더욱 은혜’를 앞세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였고, 각 사람이 필요한 자리를 지키며 선한 비전을 공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맘 다해 함께해주셨기에 씻딤나무의 제주 성지 순례 여정이 가능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짧은 글들로 대신하여 전합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행하고 돌아와 쓰는 것이 기행문이라 하는데, 이 글이 기행문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읽는 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마음이다. 27일 오전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초코파이 두개와 물 반잔을 마시고 문밖으로 나선다. 7시에 예약된 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에 무사히 도착. 아침식사 대용으로 토마토와 오이를 준비해주셨고, 삶은 계란, 요구르트, 간식 꾸러미를 받아 요기를 한다. 출국장으로 나가자는 소리에 먹던 걸 내려놓고 쏘살 같이 따라 간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10시 23분쯤 도착 지점에 다다랐을 때 기류 때문인지 급하강을 하며 덜컹거림에 어지럽다. 급기야 배가 아프다. 화장실로 직행했다. 정준호 장로님이 내 가방을 메고 다니며 천천히 볼 일 보라고 안심을 시켜준다. 점심으로 갈비탕 국물에 밥 두 숟갈 겨우 떠먹고 다시 버스에 올라탄다. 다시 떠난다. 성지 순례.

둘째 날 28일 오전에 비가 내려 실내 일정이다. 중국곡예단의 공연과 아르떼 뮤지엄이 찬란하다. 르누와르 고갱 그림을 빗으로 이동시켜 볼만했다. 연인들은 연실 찰칵거린다. 우리도 찰칵거린다. 다음 방주교회 도착. 안개비가 내린다. 노아의 방주, 물 위의 뜬 배를 상징하여 건축된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다. 성 이시돌 목장으로 출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찰칵. 로마병사가 예수님께 창으로 찌르는 모습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 로마시대는 잘 살았는지 병사들의 몸이 비만이 되어 넘치는 힘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찌르는 것 같다고 설학조 사모님에게 말했더니, 맞아요 하며 맞장구를 쳐주신다. 나쁜 놈들 힘써야 할 곳에 힘을 쓰지. 분개하며 일행을 따라간다. 29일 마지막 날 새벽. 다시 배가 아프다. 아침을 굶고 지사제를 복용한다. 배고프다. 편의점에서 목캔디와 호올스를 각각 한 개씩 구매하고 차에 오른다. 공항으로 가기 전 지사제를 복용 후 비행기에 탑승한다. 날개 옆이라 시끄럽고 덜덜덜 흔들린다. 슬슬 아픈 배가 더 아프다. 호수의 돌멩이 던지면 물결이 퍼지듯 심해지는 느낌이다. 이러면 안되는데 기도를 하고 속으로 괜챦아를 외친다. 이민자 권사님이 잠시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원래 좌석 주인이 들어온다. 고맙게도 자리를 바꿔준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비행기가 심하게 움직인다. 온몸이 정신없이 흔들린다. 트림이 나오더니 편안해진다. 다시 눈을 감고 있는데 기류 탓에 또 덜컹 거리더니 트림이 나온다. 아픈 것이 사라진다. 그때 떠오른 생각은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란 단어다. 비행기에서 아프게도 하시며, 낯게도 하신 것을 감사한다. 제주도에 도착하는 날 김창완 장로님께서 아무 일 없이 집에 올 때까지 기도해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을 받은 것인가. 계획은 조금씩 바뀌어도 큰 계획은 차질이 없었는데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강아지 ‘사랑이’의 케이지 문제로 제주도에 함께 못 간 김훈 집사님과 참석 못한 조경옥 집사, 이종숙 집사, 다른 지체들 생각이 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일상으로 돌아와 한재희 집사님의 선물 제주약과를 요양센터장과 활동도우미와 함께 나누어 먹으니 맛 좋다고 감동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탁동원 부장 집사님이 보내준 제주 오메기떡 택배가 도착한다.

“여기는 제주도,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다!”를 끊임없이 외치게 한 성지순례 가이드 팀장의 구호가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잘 따라 준 지체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군희 안수집사 / 씻딤나무

고생은 잠깐이요 추억은 영원함이라

먼저 씻딤나무 공동체가 제주 순례 여행을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 이 글로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 인데도 불구하고도 비를 거의 맞지 않았다는 것은 씻딤나무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여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소리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았음을 믿습니다.

탑승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제주에 도착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찌되었든 바다를 건너왔으니 해외라고 해야겠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도착하고 나서 일단 왕갈비탕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방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방주교회를 직접방문 하니 뭔가 모르는 가슴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물 위에 교회가 떠 있는 형상인데 그 형상이 참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보니 더욱 더 거룩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정면 위에 창문을 보았는데, 해가 뜨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그 햇빛이 비취지는 이미지가 연상되면서 장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방주교회 안에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나서 숙소로 돌아가서 첫 날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인 리조트 앞마당에 나가보니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잔뜩 끼었습니다. 멀리 나와 그런지 공기도 좋고, 자동차 소리 대신에 새 소리가 들려 그 또한 좋았습니다. 그 날 오후에는 이시돌 목장 새미 은총의 동산에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낸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까지의 여러 장면에 해당하는 동상들을 보며 묵상하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이동을 위해 버스에 올라타니 비 조금,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가시거리가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눈앞에 안개(어둠)가 짙게 깔려있더라도 목적지로 가는 길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심하여 길이 아닌 곳을 가거나 바른길을 벗어나 옆길로 샌다면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가끔은 안개나 어둠 같은 세상유흥과 시험이 짙게 깔려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오마주해서 제주 순례 여행의 느낌을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은 잠깐이요 추억은 영원함이라"

김동관 안수집사 / 씻딤나무



씻딤나무 가족, 제주도에 다녀오다

하나님, 씻딤나무 가족들을 일상에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제주 여행길에서도 두 분의 목사님을 인도자로 세우셔서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즐거움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씻딤나무에서 여행 계획이 있는 제주의 주간 날씨를 일찍부터 살펴보니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강수량과 돌풍이 예상된다고 하여 모처럼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이동하고 다닐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여행 계획을 다른 때 아니면 다른 해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만 같았지만, 여행을 추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신다며 미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참으로 믿음이 좋으시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과학적인 예고를 무시할 수도 없을 텐데 하는 우려의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목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정하니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고, 공항에서 김은선 목사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듣게 되니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려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도 있으셨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공항에 도착하려니 각자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겠지만, 예정대로 다 도착해서 입국절차를 이렇게 저렇게 마치고 탑승하게 되니 이제 제주 날씨가 신경이 쓰였지만, 공항에 안착하니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이동해야 할 때는 비가 잦아들고, 실내에 있을 때는 비가 내리기를 반복하니 우산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첫날은 아르떼 박물관에서 미디어아트를 관람하게 되었는데 새롭고도 웅장하고 화려한 세계를 접하게 되니 어둠 속에서 사계절을 눈으로 체험하면서 바닷가에서 있는 착각이 들기도 했고, 벽인지 유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 했는데 미디어 세계가 무궁무진하구나 싶어 감탄이 절로 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은 아트서커스를 관람하면서 사람의 묘기가 경이롭기도 하면서도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상품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있었을까 싶어 가엾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안개가 자욱한 이시돌 목장을 방문했는데 아일랜드 출신인 한 선교사가 제주의 한림이란 마을의 빈곤한 생활상을 안타깝게 여겨서 한라산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경작하여 마을의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소개하여 목축업을 활성화 시켰고, 이곳이 지금은 성이시돌 목장이라고 불리며 그곳에는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실감 나게 동상으로 표현해 두어서 글자를 모르는 이들이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과정 과정을 눈으로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취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밖에도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낯선 이국땅에서 주님의 빛을 반영하려고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한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여겨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은 화창한 날씨 가운데 제주 돌문화공원에 가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돌들을 여기저기 적절하게 자리하게 하여 다양한 돌들과 수석들이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니 또 다른 세계를 흥미롭게 관람하고, 2박 3일 동안 여기저기 볼거리를 보고, 제주의 음식으로 때마다 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니 씻딤나무 가족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제주의 여행길이었습니니다. 때마다 여러 상황으로 섬기는 분들이 함께하며 모두가 한마음 되어 은혜롭게 일정을 마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6월 27일 ~ 29일까지의 2박 3일의 여행길에서 하늘의 길이나 땅의 길이나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셨음을 느꼈습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맛있는 식사와 친교로 일정을 지내며, 특별히 둘째 날 저녁에는 예배와 성찬으로 함께하고 간증하며 제주의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기까지 씻딤나무 가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곳곳에서 헌신자들이 있어 아름다운 사회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안고 생활하는 씻딤나무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었고, 믿음 안에서 대단한 의지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 성지 순례의 길이 모두에게 즐거움으로 추억될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금주 권사 / 씻딤나무

소망이 현실로

일 년 전쯤 매주 수요일 오전에 함께하는 씻딤나무 성경공부(Zoom)시작 시간 전에 서로 인사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제주도에 가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먼 얘기로만 들렸었고 다 같이 정말 갈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6월 27 ~ 29일(2박3일) 제주 성지순례 여행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씻딤나무의 소망은 현실로 되었기에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동시에 날씨가 점점 다가오면서 장마 기간과 겹친 제주도의 비 소식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씻딤나무 가족들의 여행이 결코 쉽지 않은 않을 것 같아 걱정을 한 보따리를 짰은 채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마다 비를 피하게 해주셨고 무사히 모든 시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함뿐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신 배윤환목사님, 김은선목사님, 봉사자로 함께해주신 정준호장로님, 이민자권사님, 최금주권사님, 탁동원집사님, 한재희집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 주신 분,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ps.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주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방주교회와 새미은총의 동산도 꼭 가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치아 성도 / 씻딤나무

교회사용설명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교회학교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나이에 따라 성장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 병아리같이 귀여운 1학년에서 키가 벌써 거의 어른처럼 훌쩍 자라있기 일쑤인 6학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주님의교회 교회학교는 유소년 어린이들을 연령대와 특성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같은 연령대도 1부와 2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이런 어린이들이	이 곳에서		이런 내용을 배워요
초등학교 1~2학년 8~9세	유년부 포도나무	1부 주일 오전 9:00 2부 주일 오전 11:00 1층 유년부실	포도나무 유년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찬양하고 활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유년부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3~4학년 10~11세	초등부 햇살뜨락	1부 주일 오전 9:00 2부 주일 오전 11:00 3층 초등부실	햇살뜨락 초등부는 초등학교 3~4학년 친구들의 예배공동체입니다. 다양한 개성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반 별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 12~13세	소년부 아름드리	1부 주일 오전 9:00 2부 주일 오전 11:00 3층 소년부실	아름드리 소년부는 초등학교 5~6학년 친구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매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그룹 공과를 통해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7~9세	어와나 스팍스	토요일 오전 9:30~11:30 3층 소년부실	어와나 스팍스는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3년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클럽원들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성경적 가치관과 지혜의 기초를 세웁니다. 또한 넘치는 에너지와 호기심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10~13세	어와나 티앤티	토요일 오전 9:30~11:30 다목적관 5층	어와나 티앤티(T&T)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Truth)을 배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Training)을 의미합니다. T&T(티앤티) 클럽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어린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등 신앙생활을 하며 갖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 성경적인 기준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1~6학년 8~13세	어린이영어예배 English Ministry	주일 11:00 5층 제1집회실 수요일 19:20 지하 1층 사랑나무실	어린이영어예배에서는 자녀들이 영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크리스천 세계시민 어린이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6학년 8~13세	엘키즈찬양팀 L-KIDS	토요일 12:00~13:00 3층 소년부실	엘키즈(L-KIDS)는 초등학교 1~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찬양팀입니다. 목소리와 율동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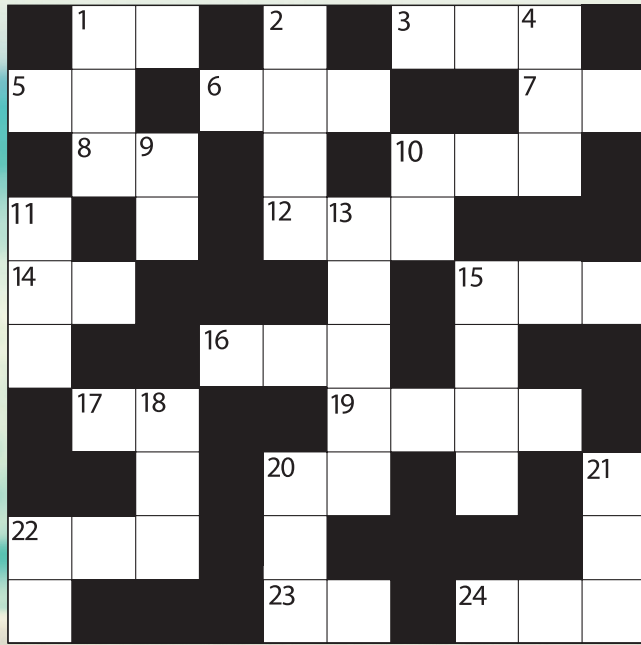
관리법과 주의사항

초등학교 시절의 어린이들은 또래집단을 이루면서 사회성이 증가하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게 나타나며, 도덕성이 형성됩니다. 신체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부쩍 키가 크고 어른스러워지는 나이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올바른 삶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인 교회학교로 이끄는 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에스라편

이번 호에는 <에스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귀환과 다시 헌신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9호 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 기념편 정답

대	하		구	제		주		무	
	나			직	분		임	기	제
주	님	의	교	회		약		명	
보			구		목		봉	헌	
	선	교		찬	양	대		금	식
			회	복		강			
정		학		예	배	당	무	소	유
신	앙	교	육		려		지		유
학				35		번	개		청
원		청	소	년	사	역		석	청

가로 힌트

- 제사를 지내는 단.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태웠던 단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만들었다. (스 3:2)
- 다윗 시대의 제사장 조직 가운데 아홉 번째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예배에 힘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대제사장이었다. (스 5:2)
- BC 6세기 중엽 중동 지역에 있던 나라. '페르시아'를 말하며,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도록 지원했다. (스 4:5)
- 바사의 초대 왕. 최대의 영토를 확보한 왕으로, 앗수르와 달리 정복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도 인정했다. (스 1:3~4)
- 어떤 것에 속한 것의 전체.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 백삼십구 명이었더라" (스 2:42)
-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릴 만한 덕목과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직분. 구약 시대에는 연륜에 따른 지혜를 갖추어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지도했다. (스 10:8)
- 머리의 가장 윗부분. "우리 죄악이 많아 ○○○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지 아니하다" (스 9:6)
-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바니 자손 중의 한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나 에스라의 권면으로 아내를 내보냈다. (스 10:37)
-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운 건축물. 솔로몬 왕이 세운 이것이 유명하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똑같은 자리에 세운 이것은 바사 왕의 후원을 받아 건축되었다. (스 6:8~12)
-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에스라의 일행과 함께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했다. (스 8:18)
- 삿두 집안의 자손.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다. (스 10:27)
- 왕의 명령을 적은 문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이 문서를 내렸다. (스 4:17)
-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브다야의 아들. 바사 왕 고레스의 허락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스 2:1~64)
- 아굽의 넷째 아들 및 그의 자손.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때 감독자로 일했던 자손들이다. (스 3:9)
- 자문에 대해 전문가로 도움을 주는 관리. 왕에게 간언을 하는 관리를 말하기도 했다. (스 7:15)
- 종교상의 축제일. 특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들을 의미한다. (스 3:5)
-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바벨론에서 2차로 포로가 귀환할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이며, 이 성경을 지은 저자로 알려져 있다. (스 8:18)

세로 힌트

-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맡아,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 1:5)
-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를 기록한 사람이다. (스 1:1)
- 함의 자손 중 한 족속. 요단강 동 서 양편에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족속들이 이들을 일러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고 했다. (스 9:1)
- 읍바에서 남쪽으로 16km 지점에 있는 지역.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있다. (스 2:33)
- 정해진 수.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대로 날마다 드리고" (스 3:4)
-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맡아,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 11:5)
- 바사 왕을 가리키는 칭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했다. (스 7:7)
-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전 기명들을 넘겨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 (스 5:14)
-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관리. 후에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 7:6)
-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에서 건너지도록 한 데에서 기원한 절기이다. (스 6:19)
-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 스룹바벨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이 성읍 출신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다. (스 2:25)
- 누군가의 후손. 성경에서는 주로 지파나 족속을 의미한다. (스 2:1)

'주님의교회'를 주제로 출제한 지난 호 십자말풀이에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정답을 맞으신 아래 세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즐함울

이재익(8교구), 김혜중(5교구), 안남희(2교구)

주차구역안내



권사 김종협 박사 (세 1952년 12월 25일)
중앙침례신학교 / 신학박사(M.D.)
복음 원소교회 / 학예(1998)~현재 소장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신학박사(1998)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저서) "자살과 목회상담", "말씀을 통해 삶은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될 자살하는가" 등

9.1 (금)

시간	내용	담당자	장소
19:00 ~ 19:15	찬양 및 감사 소개	장성식 목사 박주영 목사	중예배실 (유류석 스트리밍)
19:15 ~ 20:00	한국 사회와 기독교인의 정체성 진단	김종협 박사	
20:00 ~ 20:10	Break Time		
20:10 ~ 20:50	소그룹의 중요성과 인도자로서의 역할	김종협 박사	
20:50 ~ 21:00	격려사 관고 및 마무리	담임목사 박주영 목사	

9.2 (토)

시간	내용	담당자	장소
10:00 ~ 10:15	찬양 및 감사 소개	장성식 목사 박주영 목사	대예배실 (유류석 스트리밍)
10:15 ~ 11:45	<전교인 오복독강> 신앙생활과 정신건강	김종협 박사	
11:45 ~ 11:55	질의응답		
11:55 ~ 12:00	관고 및 마무리	박주영 목사	

거자씨 인도자 및 찬양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가을
**거자씨 인도자
수련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실은 거자씨 한 알 같으니”
- 마태복음 13:31 부

9.1 (금) 7PM 중예배실, 2 (토) 10AM 대예배실



강좌신청 QR

**가정사역원
하반기
사역일정**

클래스	담당사역자	일정	장소	회비
아름다운 부모학교 6기	이윤경 배윤환	9/7 - 10/19 (매주 목, 6주), 오후 8:00	온-오프라인 (대회의실) 병행	2만원
지나속복 새막기도회	김경민	9/9, 10/14, 11/11, 12/9 매월 둘째주 토요일 새막기도회	대예배실	없음
마더와이즈 6기	이윤경	9/12 - 10/31 (매주 화, 7주), 오전 10:00	초등부실	5만원
꿈꾸는 3막 2기	한시영 김은선	10/5 - 11/30 (매주 목, 9주), 오전 10:00	대회의실	3만원
파더와이즈 5기	이상훈	10/6 - 11/24 (매주 금, 8주), 오후 7:30	대회의실	3만원
해피맘스쿨 8기	김은선	10/10 - 11/28 (매주 화, 8주), 오후 1:00	온라인(Zoom)	없음
가정예배학교	배윤환	11/2 - 12/7 (매주 목, 5주), 오후 8:00	온라인(Zoom)	없음
결혼예배학교	박준범	11/5 - 11/19 (매 주일, 3주), 오후 3:00	유아부실(백트네)	4만원

**아기정원
28기 모집**

- 교육주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 프로그램 자유놀이~예배~소그룹 미술활동~대그룹 음악놀이~신체놀이~축복
- 일정및장소 9/7~11/23(목) 10주간 오전 10:00~12:00 1층 싹트네실
- 대상및모집인원 18~40개월 어린이와 보호자
- 등록비 15만원
입금계좌: SC계입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
입금지명: 강좌명 앞 두글자+이름 (EX) 아기○○○
- 신청방법 링크를 통한 구글신청서 **신착순 20가정**
- 주의사항 취소 및 등록비 환불은 8월 31일 한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반드시 구글신청서를 이용해 주세요.
- 문의 이은솔권도사 (010-4094-8291)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랑 함께여서 행복한
아기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부모학교

제6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

- 기 간 9.7(목) - 10.19(목), 매주 목요일 저녁 8시(6주)
- 장 소 4층 대회의실 / 온라인(Zoom)
- 대 상 부모 30명 (학부모, 예비부모)
- 등록비 2만원 (교재비 등)
입금 계좌: SC계입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
입금지명: 강좌명 앞 두글자+이름 (EX) 아름○○○
- 신청방법 QR링크 8/20까지 신청
-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1주	9.7	기독교부모는 누구인가 (박상진 소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현장강의
2주	9.14	기독교부모의 자녀이해 / 학업과 은사 이해 (여진원 안수집사)
3주	9.21	기독교부모의 교육 / 여호와 경의 교육 (도혜연 목사,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4주	10.5	성공 교육 (이정민 집사)
5주	10.12	기독교부모와 학교 (이종철 부소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6주	10.19	기독교부모들과 하나님 나라 (박상진 소장) 현장강의

* 9/28은 추석연휴로 강제가 없습니다.
* 문의 | 이윤경목사 010-9267-3582



**MOTHERWISE
마더와이즈**

성경적 여성성이라는 귀한 사명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모임

회복

- 기간 9.12(화)~10.31(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7주)
- 장소 3층 초등부실
- 대상 및 모집인원 주님의교회 (30대 ~ 60대) 여성 성도 30명
- 등록비 5만원 (교재 및 조별모임 지원)
입금계좌: SC계입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
입금지명: 강좌명 앞 두 글자 + 이름 (EX) MISO○○○
- 신청방법 QR링크 8/20까지 신청
-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입학식	9.12	입학식, 6S기도, 조별모임
2주	9.19	당신을 택하신 주님
3주	9.26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4주	10.10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5주	10.17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6주	10.24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수료식	10.31	당신을 구해주시는 주님, 수료식

문의 : 이윤경 목사 (010-9267-3582)



주님의교회

아이들이 타고있어요!

36개월 미만 영유아 동반차량



영유아 주차구역은 36개월미만 영유아 동반 차량으로서 위의 주차증을 소지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증은 아기부와 영아부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일정

8/30(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2교구)

알립니다

1. 너나들이 여름수련회

주제 : 더 알기 원하네(골로새서 2:1)

일시 : 8/19~20(토~주일)

장소 :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139번지

문의 : 김기연 집사(010.7742.9406)

2. 주방재개 안내

8/20(주일)부터 주방이 다시 시작됩니다.

식탁의 교체 및 식당 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김영례 권사(010-5583-1186)

3. 해외비전트립 일정

필리핀(몬탈반 - 의료선교) : 8/26~28(토~월) / 7명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